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0.31

## 미 증시, 달러 약세에 위험 자산 선호 커지며 상승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 미 증시 동향: 달러 ↓, 증시 ↑

•미 증시는 달러약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며 강한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주요지수 1%대 상승 마감.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3분기 GDP 성장률과 10월 인플레이션 잠정치가 시장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또한 BOJ가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을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보도로 인해 유로화와 엔화가 달러대비 강세 흐름 보여. 여기에 미 재무부는 이번 주 분기별 순차입 규모와 계획을 공개할 예정으로 공급 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로 달러 약세 흐름 나타나. 한편, 국제유가는 3% 넘게 하락하였고 국제 금 가격은 지난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2천달러를 상회하며 상반된 움직임 보여. (다우 +1.58%, 나스닥 +1.16%, S&P500 +1.20%, 러셀2000 +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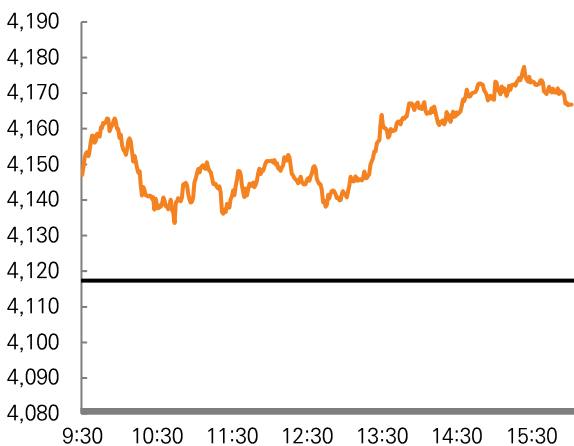
### 특징 종목: 테슬라 약세

•S&P 500의 11개 섹터 모두 상승. 지난 주 낙폭이 컸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2.06%)가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금융(+1.71%), 필수소비재(+1.55%), 경기소비재(+1.26%) 등이 1%대 상승. 지난 금요일 6%대 상승을 보였던 아마존(+3.89%)이 주요 빅테크 중 강세를 보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2.27%), 알파벳(+1.90%), 애플(+1.23%) 등 상승. 반면 자동차 칩 메이커사인 온 세미컨덕터(-21.77%)는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로 급락. 이는 테슬라(-4.81%), 앨버말(-5.23%) 등 전기차 주요 밸류체인 전반의 약세를 불러와. 이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약한 전망과 주요 소재에 대한 공급증가, 높은 재고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 자동차 칩 매출 비중이 높은 NXP세미(-5.00%), ADI(-2.92%)도 동반 약세.

### 한국 증시 전망: 장중 이벤트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2.40%, MSCI 신흥 지수 ETF는 1.0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44.18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50% 상승. KOSPI는 0.8~1.2%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광범위한 달러인덱스 하락 압력에 금일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에 주목할 필요. 외국인인 이 달 들어 국내증시에서 약 3조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시총 비중이 큰 IT가전(8.8%)과 반도체(25.7%)에 거의 2조원이나 집중. 이는 수요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금일 삼성전자 기업설명회(IR, 오전 10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12시 BOJ 통화정책 결과에 따른 달러인덱스 등락과 오전 발표 예정인 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표까지 예정되어 있는 장중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10.55	+0.34	상해종합	3,021.55	+0.12
KOSDAQ	757.12	+1.15	홍콩항셱	17,406.36	+0.04
DOW	32,928.96	+1.58	인도센섹스	64,112.65	+0.52
NASDAQ	12,789.48	+1.16	유로스톡스 50	4,028.32	+0.35
S&P 500	4,166.82	+1.20	영국	7,327.39	+0.50
캐나다	18,856.76	+0.64	독일	14,716.54	+0.20
일본	30,696.96	-0.95	프랑스	6,825.07	+0.44


 변화 요인

## 달러 약세 요인 3가지

미 증시는 달러약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며 강한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주요지수 1%대 상승 마감.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3분기 GDP 성장률과 10월 인플레이션 잠정치가 시장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또한 BOJ가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을 ‘더 유연하게’ 가져 갈 수 있다는 보도로 인해 유로화와 엔화가 달러대비 강세 흐름 보여. 여기에 미 재무부는 이번 주 분기별 순차입 규모와 계획을 공개할 예정으로 공급 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로 달러 약세 흐름 나타나. 한편, 국제유가는 3% 넘게 하락하였고 국제 금 가격은 지난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2천달러를 상회하며 상반된 움직임 보여.

### # 요인1. 독일

예상보다 나은 성장과 물가 상황에 유로화 강세.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가 시장이 예상한 전년대비 -0.3%보다 개선된 -0.1%로 나타나. 또한 2분기 성장률은 -0.2%에서 0.0%로 상향 조정. 여기에 10월 CPI 잠정치는 전년대비 3.8% 하락해 전월의 4.5%에 비해 급락했으며, 시장 컨센서스인 4%를 하회. 이는 식품 인플레이션이 2022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완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기 때문. 10월 CPI 잠정치는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독일의 전체 석유 사용량은 올해 하루 약 9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디젤과 나프타 등 필수 산업용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 특히, 디젤과 나프타는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적임을 시사. 또한 이 날 공개된 10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는 -17.9로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유로존 경기기대지수 역시 93.3으로 2020년 11월(92.3) 이후 최저치 기록.

### # 요인2. 일본

BOJ의 통화정책 수정 가능성에 엔화 강세. 31일 12시(한국시각)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공개를 앞두고 이 날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892%까지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달러/엔 환율은 며칠 전 기록했던 150.77엔에서 149엔까지 하락. 이는 BOJ가 수익률 곡선 통제(YCC)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니케이 신문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 실제 BOJ는 미일 금리차가 확대되며 심화되는 엔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YCC 허용폭을  $\pm 50\text{bp}$ 로 상향하였고 지난 7월 YCC 유연화를 발표하며 ‘비공식적’으로  $\pm 100\text{bp}$ 를 허용. 그러나 이번에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는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기금리 상승과 엔화강세가 진행될 가능성 높아

### # 요인3. 미국

미 재무부는 분기별 순차입금 규모 및 계획 공개에 대한 부담. 지난 7월 말, 공개한 분기별 차입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로 차입규모 및 세부계획에 대한 관심 큰 상황. 지난 7월에는 오는 10~12월 차입할 부채규모를 8,520억 달러로 추정. 만약 이 보다 많을 경우, 국채 수익률 전반의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 또한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 커질 것으로 전망.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빅테크 강세 속 테슬라 하락

S&P 500의 11개 섹터 모두 상승. 지난 주 낙폭이 컸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2.06%)가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금융(+1.71%), 필수소비재(+1.55%), 경기소비재(+1.26%) 등이 1%대 상승. 지난 금요일 6%대 상승을 보였던 아마존(+3.89%)이 주요 빅테크 중 강세를 보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2.27%), 알파벳(+1.90%), 애플(+1.23%) 등 상승. 이 날 장 시작 전, 실적을 발표한 맥도날드(+1.70%)는 3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예상을 상회하며 상승. 웨스턴디지털(+7.26%)은 시장 예상보다 나은 실적과 두 개의 별도 회사로 분할하겠다고 발표. 또한 부동산 업종에서 2건의 M&A가 성사됐는데, 스피릿부동산캐피탈(+7.79%)과 피지션리얼티(-0.59%)는 각각 리얼티인컴(-5.69%)과 헬스픽프로퍼티스(-2.68%)에 인수될 예정. 소파이테크놀로지(+1.02%)는 3분기 호실적과 연간 전망 상향에 장중 14% 넘게 상승했으나,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상승폭 축소. 지난 9월 중순에 시작된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이 포드(-1.91%), 스텔란티스(-0.22%) 및 GM(+0.51%)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일단락.

반면 자동차 칩 메이커사인 온 세미컨덕터(-21.77%)는 부진한 실적과 가이드نس로 급락. 이는 테슬라(-4.81%), 앨버말(-5.23%) 등 전기차 주요 밸류체인 전반의 약세를 불러와. 이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약한 전망과 주요 소재에 대한 공급증가, 높은 재고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 자동차 칩 매출 비중이 높은 NXP세미(-5.00%), ADI(-2.92%)도 동반 약세.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제 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원유 수요 감소 우려에 3% 넘게 급락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 가격 수준으로 떨어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독일의 전체 석유 사용량은 올해 하루 약 9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디젤과 나프타 등 필수 산업용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 독일에 이어 제2의 경제대국인 프랑스도 급격한 수요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 원유 수요 감소 전망은 최근 OPEC 등 여러 기관에서 나온 '전망'과는 상반된 것으로 이는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걸 의미. 반면, 세계은행은 중동 갈등으로 원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규모에 따라 유가가 최소 93~102달러에서 최대 157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 또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적자 예산 확대 편성 계획을 밝히자 철광석, 구리 등 산업용 금속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각각 1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장중 이벤트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2.40%, MSCI 신흥 지수 ETF는 1.0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44.18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50% 상승. KOSPI는 0.8~1.2%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광범위한 달러인덱스 하락 압력에 금일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에 주목할 필요. 외국인은 이 달 들어 국내증시에서 약 3조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시총 비중이 큰 IT가전(8.8%)과 반도체(25.7%)에 거의 2조원이나 집중. 이는 수요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금일 삼성 전자 기업설명회(IR, 오전 10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12시 BOJ 통화정책 결과에 따른 달러인덱스 등락과 오전 발표 예정인 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표까지 예정되어 있는 장중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



## 국제 금 2,000달러 돌파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35	대형 가치주 ETF (IVE)	+1.40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64
소매업체 ETF (XLY)	+0.92	소형 가치주 ETF (IWN)	+0.74
온라인소매 ETF (EBIZ)	+1.38	대형 성장주 ETF (VUG)	+1.36
미국 인프라 ETF (PAVE)	+1.06	중형 성장주 ETF (IWP)	+0.40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37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1.09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98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29	미국 국채 ETF (IEF)	-0.33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46	하이일드 ETF (JNK)	+0.02
바이오섹터 ETF (IBB)	+0.55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85	물가연동채 ETF (TIP)	-0.16
반도체 ETF (SMH)	-0.25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3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커뮤니케이션	217.36	+2.06	-5.04	-2.18
필수소비재	714.73	+1.55	+0.82	-1.74
금융	531.02	+1.55	-0.19	-3.83
경기소비재	1,198.53	+1.26	-0.04	-5.18
산업재	825.79	+1.23	-0.66	-3.71
IT	2,887.42	+1.19	-0.92	-0.62
소재	476.48	+0.98	+1.62	-3.65
유틸리티	300.29	+0.68	+2.77	+0.36
헬스케어	1,442.11	+0.55	-2.73	-3.94
에너지	650.56	+0.31	-4.32	-6.29
부동산	203.41	+0.31	-0.09	-4.87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2.31	-3.52	-3.46	Dollar Index	106.135	-0.40	+0.57
브렌트유	87.45	-2.94	-2.24	EUR/USD	1.0616	+0.48	-0.51
천연가스	3.35	-4.11	+14.15	USD/JPY	149.08	-0.39	-0.42
금	2,005.60	+0.36	+0.90	GBP/USD	1.2169	+0.39	-0.65
은	23.40	+2.42	+0.99	USD/CHF	0.9020	-0.03	+1.22
알루미늄	2,266.50	+2.09	+4.16	AUD/USD	0.6375	+0.63	+0.62
전기동	8,140.50	+0.51	+2.11	USD/CAD	1.3827	-0.31	+0.99
아연	2,465.50	-0.24	+1.88	USD/RUB	92.6590	-1.77	-2.01
옥수수	478.25	-0.47	-2.40	USD/BRL	5.0420	+0.55	+0.58
밀	566.00	-1.69	-3.66	USD/CNH	7.3242	-0.13	+0.19
대두	1,307.25	-0.85	+0.21	USD/KRW	1,350.90	-0.37	-0.21
커피	159.10	-1.15	-4.07	USD/KRW NDF1M	1,344.18	-0.74	+0.1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888	+5.32	+3.76	스페인	3.894	-3.30	-7.30
한국	4.305	+1.50	-7.00	포르투갈	3.525	-3.40	-5.70
일본	0.892	+1.10	+1.50	그리스	4.146	-2.40	-14.60
독일	2.822	-1.00	-5.20	이탈리아	4.738	-6.60	-10.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